

말씀 : 베드로후서 1:1-21

요절 : 베드로후서 1: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으로 수신자는 동일합니다(벧후3:1). 이 서신은 A.D 66-67년경 사도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로마에서 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신자들이 교회 외부로부터의 박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에 잠입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복음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1강에서는 신자들에게 주신 영적 축복과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의 투쟁을 잘 감당하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종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1-4)

1,2절은 인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예수님께 붙잡혀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하는 종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최 씨 관련 사건으로 분노가 극에 달하고,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인사에 뒤이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앞으로 말미암음이라.” 신기한 능력 ‘divine power’이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생명이란 영적 생명을, 경건은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변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변화될 수 없었으며 또 영적

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앞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을 강조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4) '이로써'란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써'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에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요3:16).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벧전1:3,4). 우리의 몸이 장차 썩지 않고,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고전15:42-44). 또한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벧후3:12,13).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했을까요? 이는 세상의 거짓 약속들과는 달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약속으로서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① 피해야 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4b) 정욕이란 'evil desires'로서 인간의 죄악 된 욕망입니다. 요한일서 2: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러한 정욕을 탐닉하는 자는 결국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은 정욕대로 사는 사람의 결국은 성적 타락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불효, 무지와 무정과 무자비한 자로 전락한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패와 타락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피한다는 것은 'escape'로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화계의 황태자 차은택 씨도 학교는 빠져도 교회는 빠지지 않았다는 모태신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과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그 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다."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는 원인 중 하나가 교인들의 성품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② 참여해야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4c) '신성한 성품'(테이아 퀴시스)이란 신적인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며, 점점 성화되어 그리스도의 인격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신성한 성품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그 벌로 그 형상을 빼앗겼습니다. 즉 신성한 성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난 신자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자로 다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습니다(엡 4:13).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영적인 소원과 열정이 없이 과거와 동일하게 죄악 된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의 복을 추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그의 인생은 결국, 세속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바로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 땅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교만해서 제 잘난 맛에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빌 3:11),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의 소원이 되었습니다(빌2:5).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빌1:20).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날마다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덧입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것이 한 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워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II. 그리스도인이 쌓아야 할 덕목들(5-11)

5-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힘써 쌓아야 할 덕목(德目)이 무엇이며, 8-11절은 이런 덕을 쌓은 자와 쌓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쌓아가야 할 신성한 성품(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5-7)

첫째, 믿음(피스테이)입니다. 믿음은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집으로 말하면 기초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엡2:8).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려면 먼저 믿음을 견고케 해야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역경(逆境)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 위에다 덕목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됩니다.

둘째, 덕(아레테)입니다. 덕은 사상과 감정과 행동의 덕스러운 품행 곧 덕행, 도덕적 선행(탁월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덕은 사람을 품고 섬기는 내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도덕성을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주며 염치없이 행동하기 쉽습니다. 또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섬기는 내면성이 없으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는 사람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염치가 없고 독선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사람은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의 말은 다 옳은데 이상하게도 알뜰합니다. 그래서 덕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말은 잘 들어주고 사람을 잘 품고 섬기는 사람, 한 마디로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잘 붙습니다.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이란 말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쌓기에 힘써야 합니다. 덕스러운 크리스천이 될 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셋째, 지식(그노시스)입니다.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덕은 있지만 영적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덕이 있는 생활을 하려면 성경에 대한 지식, 온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4: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 인생을 함부로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온전한 지식이 없을 때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지혜를 주고,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딤후3:16-18). 그러므로 평소 성경 읽기에 힘쓰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참된 지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덕에 지식을 쌓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절제(엔크라테이아)입니다. 절제는 자기 통제 ‘self-control’로써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혈기를 죽이고 동물적 요소를 이성의 통제 하에 두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육신의 본성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혈기와 동물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은 대로 배부르게 먹다가 성인병에 걸립니다. 눈이 붓도록 늦게까지 자다가 안일과 게으름 병에 걸립니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다가 낭비 병에 걸립니다. 생각을 절제하지 못해 염려와 불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해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시험 중인데도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절제하지 못해 시험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면 죽게 됩니다(롬8:13).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고전9:25). 또 절제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

제해야 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생활에 질서가 생기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섯째, 인내(휘포모네)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역경 중에서도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견디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질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낙심하여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때 인내하지 못해 중도하차를 하면 모든 일이 허사(虛事)로 끝나고 맙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 경주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경주를 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해 버린다면 결코 상을 얻지 못합니다. 인내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결실하게 되고(눅8:15), 끝까지 인내한 자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막13:13).

여섯째, 경건(유세베이아)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참된 기쁨이 있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를 날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롬6:13, 딤후2:15). 구체적으로 시간과 진심을 드려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이지만 불신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경건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시145:19, 히5:7).

일곱째, 형제 우애(필라델피아)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아끼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형제 우애가 있을 때 성도 간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로가 형제에게 관심을 갖고,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명령입니다(요13:34). 신자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합심하여 복음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세상에 대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요13:35).

여덟째, 사랑(아가페)입니다. 우리가 힘써 쫓아야 할 7개의 덕목들 가운데 최고는 사랑입니다(고전 13:13). 여기서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으로(요3:16),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롬5:8). 이는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한1서4:7,8). 한 번 내가 하나님께 한 일을 생각해봅시다. 미움 받을 행동, 원수 같은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티끌만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원수 같은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길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는 죄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눅6:33).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그런

인간적이고 저차원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고전13:13).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요일4:8).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고 실천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눅6:35).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재미가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상 7가지의 덕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신앙의 교향곡(交響曲)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덕목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갈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덕을 쌓지 않을 때 영적 소경이나 근시안이 되어 현세에만 열매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고, 구원의 은혜마저 상실하여 결국에는 실족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성장을 위해서 믿음 위에 7가지 덕목을 쌓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III. 진리 안에 굳게 서라(12-21)

어떤 사람은 “인간을 땅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들이 이미 서 있는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당시 교회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써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음’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왜 다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금 그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正體性)이 흔들렸습니다. 즉 부르심과 택하심의 뿌리가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삶 속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물론이고 말과 행동까지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는 먹지 않으면 앓아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소는 되새김질을 할 때 음식이 침과 섞여서 제대로 영양분이 되어 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쑥을 한 번 머리로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그것을 다시 삶 속에서 꺼내어 되새김질을 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내 것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생각한다.’는 것은 ‘말쑥의 되새김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은혜 목자님은 첼로를 잘합니다. 잘하는 것은 음악성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또 다른 비결은 연습에 있습니다. 밤중에도 연습하고 새벽에도 연습합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연습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쑥을 어떻게 삶 속에서 생각하고 연습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될까’를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흠어진 성도들이 이미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직감하고, 더욱 성도들에게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일깨워 주고자 했습니다.(13,14) 로이드 존스(David Martyn Lloyd-Jones 1899-1981,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설교자의 일은 우리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이고, 영원한 진리들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Isaac Newton)은 90세 가까이 살았는데, 말년에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일세.” 그는 그 많은 지식들은 다 잊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택함 받았다는 영적인 신분만은 항상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늘 내가 받은 은혜와 부르심과 사명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15)

16~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재림을 부정하고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자들을 거짓 교사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증거를 기초로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생생한 체험입니다.(16-18)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알게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16) 사도 베드로가 반복해서 가르친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강림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임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변화산에서 영광중에 변형되신 예수님을 본 체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17,18)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장차 큰 능력과 영광중에 다시 오실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런 모습으로 변화되신 모습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음성도 들었습니다(마17:2,5).

둘째,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19절)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샅밭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19) ‘더 확실한 예언’이란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성경)입니다. 이 예언은 어두운 데,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라고 고백한 것처럼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불신으로 말미암는 모든 무지와 흑암을 몰아내는 빛과 같습니다.

요한 웨슬레(John Wesley, 1703-1791)는 신학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집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16,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가 로마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주의 깊게 보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以信稱義)의 진리가 섯별처럼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섯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볼 때(성경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20)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풀다는 것은 이단의 경우처럼 성경을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어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①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 예언은 다른 예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즉 한 말씀을 문장 속에서 떼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단의 오류(誤謬)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문장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성경 전체의 통일된 사상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구약은 신약의 눈으로 보고 신약은 구약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② 성경은 신자 자신의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칼빈(Calvin)이 말한 대로 성경이 가면 우리도 가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밖의 것을 이야기 할 때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③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올바르게 해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21)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선지자들이 개인적인 뜻으로 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령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해석되어야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성경 선생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시119:12,18)

우리가 이런 제멋대로의 해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되지, 왜 연구하느냐?”고. 이것은 정말 순진하고 무식한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와 언어적 간격이 있고, 시간과 지리적 간격과 문화적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중고등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어를 이해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의 2천 년의 시간과 문화적 차

이를 연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베드로후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전에 당시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시 성도들’을 ‘처음 청중’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청중’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그 메시지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면 할수록 바른 메시지를 깨닫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7가지 덕목들을 쌓는 일에 더욱 힘쓰며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썩어질 정욕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 스스로를 연단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로써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는 자들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